

## 2025년 3/4분기 대외채권·채무 동향

- 외국인의 한국 채권 투자 등으로 대외채무 규모가 2분기말 대비 25억불 증가 -
- 외채건전성 지표가 하락(개선)하는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 유지 -

2025년 3/4분기 대외채무는 7,381억불로 2분기말(7,356억불) 대비 25억불 증가하였다.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(만기 1년 이하)는 1,616억불로 2분기말 대비 △54억불 감소하였고, 장기외채(만기 1년 초과)는 5,765억불로 2분기말 대비 +79억불 증가하였다. 부문 별로는 외국인의 회사채 투자 등 기타부문(비은행권·공공·민간기업, +90억불)을 중심으로 외채가 증가한 반면, 정부(△32억불), 중앙은행(△12억불), 은행(△21억불) 부문은 감소하였다.

금년 3분기 중 대외채무 증가는 동 기간 중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우리 채권에 대한 순투자\*(자금 유입)를 반영하고 있다.

\* 3분기 중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순투자: (7월)3.0조원 (8월)△0.6조원 (9월)0.8조원 (7~9월)3.2조원

대외채권은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와 외화 예치금 증가 등으로 2분기말(1조 928억불) 대비 +271억불 증가한 1조 1,199억불을 기록하였으며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,818억불로 2분기말(3,572억불) 대비 +246억불 증가하였다.

한편,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('25.2분기 22.7% → 3분기 21.9%), 단기외채/외환보유액 비율('25.2분기 40.7% → 3분기 38.3%) 등 건전성 지표는 2분기말 대비 개선(하락)되었고, 외채 등에 대한 국내은행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(LCR, Liquidity Coverage Ratio)은 3분기말 기준 160.4%로 규제비율인 80%를 크게 상회하는 등 대외건전성이 견조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.

\* 최근 3년 변동범위 및 평균 : (단기외채/총외채 비중) 20.9%~28.0% / 평균 23.8%  
(단기외채/보유액 비율) 33.7%~42.3% / 평균 38.0%

정부는 글로벌 통상환경 및 통화정책 변화, 주요국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외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	책임자	과 장	김희재 (044-215-4710)
		담당자	사무관	이태윤 (lty703@korea.kr)

**참 고**

**대외채무 현황 : 기말기준**

구분	2022	2023	2024				2025			전기비 증감
			1/4	2/4	3/4	4/4	1/4	2/4	3/4	
총 외채(억불)	6,733	6,773	6,712	6,657	7,050	6,729	6,834	<b>7,356</b>	<b>7,381</b>	+25
단기외채(억불)	1,740	1,415	1,411	1,421	1,584	1,465	1,493	<b>1,671</b>	<b>1,616</b>	△54
장기외채(억불)	4,993	5,359	5,300	5,236	5,465	5,264	5,341	<b>5,685</b>	<b>5,765</b>	+79
단기외채/총외채(%)	25.8	20.9	21.0	21.3	22.5	21.8	21.9	<b>22.7</b>	<b>21.9</b>	△0.8%p
단기외채/보유액(%)	41.1	33.7	33.7	34.5	37.7	35.3	36.5	<b>40.7</b>	<b>38.3</b>	△2.4%p
대외채권(억불)	10,351	10,350	10,425	10,312	10,725	10,600	10,513	<b>10,928</b>	<b>11,199</b>	+271
순대외채권(억불)	3,618	3,577	3,714	3,655	3,676	3,871	3,679	<b>3,572</b>	<b>3,818</b>	+246

※ 통계 출처: 2025년 3/4분기 국제투자대조표(잠정) (한국은행, '25.11.19.)